

뉴스웨이 독자권익위원회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 회의록

○ 개요

- 일시: 2026년 10월 13일(화)
- 장소: 뉴스웨이 회의실
- 참석자: 정상국 위원장, 권오용 위원, 김여일 위원, 윤경호 위원(총 4명)

○ 안건

- 포털 조회수 제고와 경제매체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기사 제작 방향 논의

○ 회의 자료

- 제목: 2026년 하반기 다음 뉴스 조회수 상위 기사 분석 및 향후 기사 제작 방향
- 자료 내용: 2026년 하반기 다음 뉴스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뉴스웨이의 주요 기사와 조회수 현황을 공유하고, 독자들의 경제 이슈별 관심도를 살펴봄.

○ 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 (정상국 위원장) 포털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들을 보면 독자들의 재산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경제매체로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려면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복잡한 세금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절세 방법 중심으로 풀어내는 기획이 효과적일 것임.

특히 재산의 취득·보유·양도·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과 주요국의 과세·공제 체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세금 전문가를 지정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협업해 정기적인 절세 가이드와 상담 콘텐츠를 운영한다면 독자의 관심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권오용 위원) 포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기사와 함께 경제매체로서 장기적인 국가·산업 의제를 선점하는 노력도 필요함.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노동시장, 소비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장기 기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인구 문제를 먼 미래의 위기로만 다루기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고, 간병비·요양비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과 연결하는 접근이 효과적일 것임. 이를 통해 대중성과 경제매체의 전문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음.

- (김여일 위원) 독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이슈라는 점에서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구독경제도 주목할 만한 소재임. 특히 젊은 세대는 초기 구매 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고 제품을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독 서비스를 선호하는 만큼, 소비 방식의 변화를 경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구독의 편의성뿐 아니라 직접 구매와 구독·렌트의 총비용, 계약기간, 유지관리비 등을 업체별로 비교하는 기획이 효과적일 것임. 품목별 실제 지출액과 장단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면 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실용적인 경제 콘텐츠가 될 수 있음.

- (윤경호 위원) 경제매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포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정보를 강화해야 함. 대형 언론사가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뉴스웨이는 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예금 금리 관련 기사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사례처럼 금융기관별 실제 이자와 대출상품의 유불리 등을 정기적으로 비교하는 기획이 효과적일 것임. 기사 발행 건수를 늘리기보다 구체적인 금액과 비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전체 요약

- 포털 조회수 제고와 경제매체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독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금·절세, 금융상품 비교, 구독경제 등 구체적인 금액과 비용 차이를 보여주는 실용적인 기획을 통해 독자의 관심과 경제매체로서의 전문성을 함께 높일 필요가 있음.
-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중장기 경제 의제도 간병비·요양비 등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와 연결해 지속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배석 및 기록: 이윤구 기자)